제8강 소피스트들은 누구인가 Ⅲ

(1교시)

Ⅳ. 네 번째 마지막 분할

소피스트들은 변화무쌍한 존재들이다. 즉 실체를 잡기 힘든 존재들이다. 이것은 소피스트들의 시뮬라크르적 성격을 함축한다. 때문에 플라톤은 이 변화무쌍한 존재들이 남기고 다니는 흔적 찾기를 제안한다. 이 대목은 플라톤의 생각을 여러 측면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흥미로운 부분이다.

지금까지 플라톤은 기술을 제작술과 획득술로 양분하고서 논의를 전개시켰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는 분리술이라는 또 다른 기술을 놓고서 논의를 전개한다. 분리술도 기술이라면, 앞에서 기술을 제작술과 획득술로 양분했던 것은 임시방편적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분리술은 제작술이나 획득술 둘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일까? 별다른 설명 없이 논의를 진행하는 이방인에게 테아이테토스 스스로도 당혹감을 느꼈던 것 같다.

분리술의 이미지는 분할술의 이미지에 오버랩된다. ‘diakritikê’는 분리, 구분, 결정, 판단 등과 관련되며, 이런 작업은 지금 플라톤의 작업 바로 그것과 거의 같은 것이다. 다시 묘한 얽힘이 있다.

0. 집안일을 할 때 체질하는 것, 거르는 것, 까부르는 것, 또는 빗는 것, 잣는 것, 짜는 것 같은 여러 기예들이 있다. 이것들을 ‘분리술’이라 부를 수 있다.

1. 분리술에는 (빗기, 잣기, 짜기에서처럼) 닮은 것을 닮은 것에서 분리해내는 경우도 있고, (체질하기, 거르기, 까부르기에서처럼) 더 나은 것에서 더 못한 것을 분리해내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를 ‘정화술(katharmos)’이라 부른다. 소피스트들은 지혜를 가르쳐주겠다고, 달리 말해 무지를 분리해내 주겠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의 기예는 일단 정화술에 속한다.(그러나 뒤에서 보겠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닮은 것을 닮은 것에서 분리해내는 것이다)

2. 정화에는 신체의 정화와 영혼의 정화가 있다. 신체의 정화에는 매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영혼의 정화가 문제가 된다. 소피스트술은 영혼의 정화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 분할술은 늘 두 항들 중 하나를 방기(放棄)하고 관심의 초점이 되는 다른 한 항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플라톤은 예외적으로 방기되는 항(즉 신체에 관련된 정화술)에 대한 긴 부연을 덧붙이고 있다.
신체의 정화에는 생명체의 정화와 무생명체의 정화가 있다. 생명체의 정화에는 체육과 의술의 정화 같은 내적인(신체 내부를 정화하는) 것도 있고 목욕의 정화와 같은 외적인(신체 표면을 정화하는) 것도 있다. 무생명체의 정화에는 축융술(縮絨術)이나 초벌칠 등을 비롯해 여러 잡다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이방인은 이성적 방법에 있어서는, 즉 현재의 논변에 있어서는 이런 구분들이 중요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 파악하는 것”

www.artnstudy.com

이다. 중요한 것은 신체의 정화와 영혼의 정화를 구분하는 일인 것이다.

3. 영혼에는 악한 부분과 선한 부분이 있다. 영혼의 정화는 영혼의 악한 부분=악덕함을 제거하는 것이다. 영혼의 악덕함에는 두 가지가 있다. 신체에서의 질병에 유비적인 것과 신체에서의 기형(奇形)에 유비적인 것이 있다. 신체적 질병에 유비적인 것은 불화이고(불화는 판단/의견과 욕망이, 의지와 쾌락이, 이성과 고역이 싸우게 만든다) 신체적 기형에 유비적인 것은 편파심이다.(편파심은 분별심을 눈멀게 해서 무지를 낳는다) 따라서 영혼의 정화는 불화의 정화와 편파심/무지의 정화로 분할된다. 신체적 질병에는 의학이, 기형에는 체육이 필요하듯이, 불화가 낳는 오만무례, 부정의(不正義), 비겁에는 징벌이 필요하고, 편파심/무지에는 교육술이 필요하다. 요컨대 영혼의 악덕함의 정화는 징벌에 의한 불화의 정화와 교육술에 의한 무지의 정화로 분할된다. 소피스트술은 '소피스트'라는 말 자체가 시사하듯이 무지의 정화에 관련된다.

4. 무지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무지와 독특한 성격의 무지가 있다. 후자는 곧 "모르면서 안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술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무지를 깨우치는 기술과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기술이 있다. 전자는 기술교육이고, 후자는 교양교육이다. 소피스트들은 특정한 기예를 가르치기보다는 읽기, 쓰기, 말하기, … 등에 관련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므로, 소피스트술은 교양교육에 속한다.

5. 그러나 교양교육 자체도 다시 더 나눌 수 있다. 교양교육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꾸짖거나 타이르는 요령인 훈계술과 철학적 비판이 있다. 철학적 비판은 가장 중요한 정화이다.

* 철학적 비판은 훈계술이 아닌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사람들의 행위이거니와, 플라톤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다름 아닌 소크라테스의 탐구 방식이다. 관습이나 권위에 기초하는 '훈계술'과 대조적으로, 소크라테스적인 철학적 비판은 확고한 방법론에 기초한 학문적 비판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실행된다. 1)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캐물어 들어간다. 2) 그런 의견들을 모두 모아서 맞대면시킴으로써 그것들이 같은 대상에 대해, 같은 관점들에 관련해, 같은 관계들 아래에서 서로 모순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음을 밝힌다. 3) 그런 의견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그릇된 것인지를 증명한다.

이제 소피스트술을 훈계술이나 철학적 비판 어느 한 곳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플라톤은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소피스트술은 분명 훈계와는 성격이 다르며, 그렇다면 철학적 비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소피스트들은 철학자들이 되어버린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교양교육을 훈계술과 소피스트술과 철학적 비판으로 삼분해야 할까?(그림 1) 그러나 플라톤은 이 삼분법을 취하지 않는다. 이 쉬운 길을 플라톤은 왜 가지 않았을까? 아니라면 분할을 더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철학적 비판에 진정한 철학적 비판과 그릇된 철학적 비판 – 철학"적"이긴 하지만 결코 좋은 철학은 아닌 그런 행위 – 로 다시 세분하면 되지 않을까?(그림 2) 그러나 플라톤은 이 길도 가지 않는다. 사실 이전에 나온 개념인 'eristike'가 그릇된 논박술의 의미를 띠고 있고, 따라서 자연히 'elenchos'와 대비되기에(실제 다른 대목들에서는 그렇게 구분되어 사용된다) 용어들도 이미 마련되었건만, 왜 이 대목에서 'eristike '와 'elenchos'를 대비시키지 않는가? 플라톤은 여기에서 분할을 멈추고서, 소피스트들을 마지못해서 철학적 비판으로 분류하고 있다.

www.artnstudy.com

왜일까? 수수께끼 같은 대목이다.

[그림1]교양교육의 삼분

[그림2]철학적 논변의 양분

변화무쌍한 소피스트들을 포획하기 위해 여러 갈래의 그물을 던졌던 이방인은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다.

1. 소피스트란 치부하기 위해 부잣집 자식들을 포획하러 다니는 사냥꾼들이다.
2. 소피스트란 지식의 도매상이자 소매상이자 직매상이다.
3. 소피스트란 논쟁술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치부하는 자이다.
4.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무지를 정화해 주는 자이다.

결국 플라톤이 바라보는 소피스트는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 즉 한편으로 진리 탐구보다는 치부에 발 벗고 나선 자의 모습과 다른 한편 무지를 정화해 주는 자이긴 하지만 사실상 논쟁술을 가르치는 것에 불과한 자의 모습을 띤다. 따라서 소피스트에 대한 플라톤의 규정은 두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진정한 철학자가 아니라 장사꾼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정한 지식/교육이 아닌 사이비 지식/교육을 가르치는 가짜 철학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자는 도덕적 규정이고, 후자는 인식론적 규정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후자이다. 소피스트의 가르침이 거짓이 아니라면, 즉 그들의 지식이 인식론적으로 정당하다면, 후자의 규정이 파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자의 규정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설사 정당한 지식으로 치부한다 해도, 철학적 탐구 때문에 가산을 탕진한 소크라테스나 막대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플라톤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지식인들은 추한 지식 장사꾼들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이 진짜 지식이라면 도덕적 규정 – 사실상은 비난 – 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플라톤은 이제 대화편의 초점을 인식론, 더 나아가 존재론에 맞춘다. 그러나 인식과 존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넘어가기 전에 '분할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음미해 보자.

www.artnstudy.com